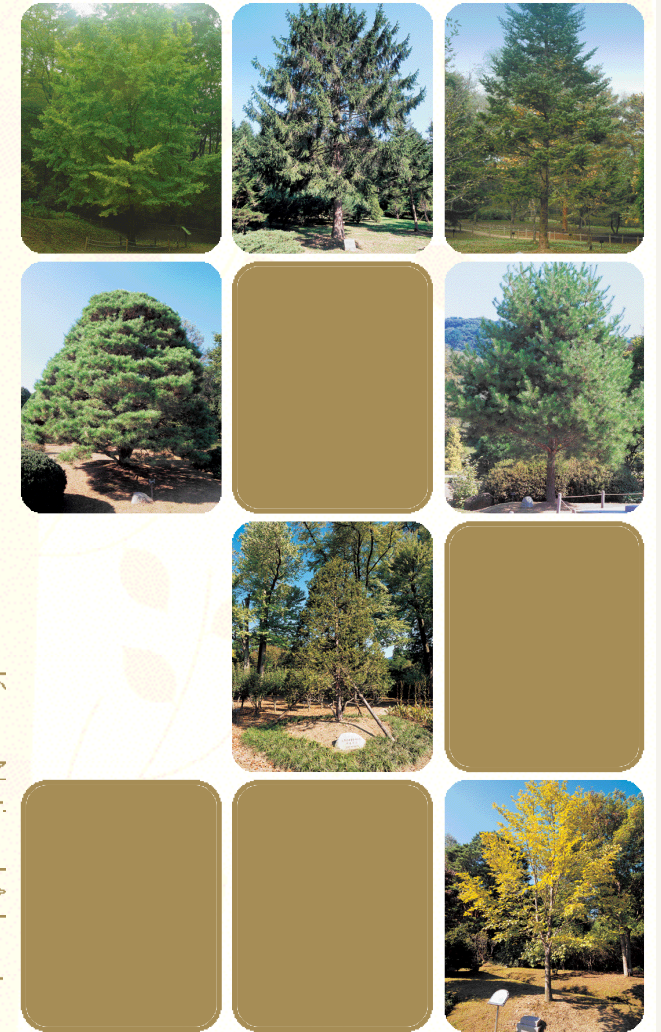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400119-000061-01



Korea National Arboretum

Korea National Arboretum



Contents

Korea National Arboretum

- 6 인사말
- 8 “산림녹화의 시발점”이 된 **故박정희**대통령 기념조림 및 식수
- 10 “조림에서 육림”으로 **전두환**대통령 육림행사 및 기념식수
- 12 “광릉수목원 개원 축하”와 **전두환**대통령 내외분 육림행사 및 기념식수
- 14 “신품종 육성”을 강조한 **노태우**대통령 기념식수
- 16 “국토녹화기념탑 제막식”과 함께 한 **노태우**대통령 기념식수
- 18 “문민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김영삼**대통령 기념조림 및 식수
- 20 “숲 가꾸기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영삼**대통령 기념조림
- 22 “세계 산의 날 산림헌장”이 선포된 **김대중**대통령 내외분 기념조림 및 식수
- 24 “야생화”를 좋아하신 **노무현**대통령 내외분 기념식수
- 26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기념조림 및 식수

인사말

우리가 광릉숲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릉숲이 세조대왕의 능림으로 지정된 1468년부터 기록되어진 역사를 가진 숲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릉숲의 역사는 단절되어진 과거가 아닌 오늘도 쓰여 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근세에 들어서는 근대적인 의미의 조림사업이 시범적으로 행하여졌으며, 임학 및 식물분류학이 시작된 곳도 광릉숲입니다. 이러한 광릉숲의 역사적인 발자취 가운데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기념식수 및 조림입니다.

故박정희대통령부터 시작되어 여섯 분의 대통령과 한 분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심으신 대통령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뽑히는 우리나라 국토녹화사업의 산증인으로 지금도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나무 이야기는 단순조림에서 생태조림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산림발달사를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6·25전쟁 등 나라의 혼란기 중에 재임하신 故이승만대통령과 재임기간이 짧았던 故윤보선대통령, 故최규하대통령의 기념식수가 없는 것은 진한 아쉬움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Greeting



“광릉숲 대통령 나무 어제와 오늘” 발간 과정에서 故박정희대통령이 최초로 기념식수한 1970년부터 불과 40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 나무와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음을 발견하고 자료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광릉숲 대통령 나무 어제와 오늘” 발간을 계기로 부족한 자료를 계속 보완하고, 우리 민족의 유산으로 대통령 나무를 더욱 소중히 가꾸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산림역사 전반에 관한 자료를 발굴하고 기록·보존하는 일에 더한층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광릉숲 대통령 나무 어제와 오늘”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식 연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08년 12월

국립수목원 원장 박 종 서



“우리나라의 황폐한 산지를 하루 빨리
복구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며 나무를 사랑하고
산림을 애호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故朴正熙대통령 은행나무 기념식수목

“산림녹화의 시발점”이 된 故朴正熙대통령 기념조림 및 식수

1970년 4월 5일 제25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故朴正熙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이곳 국립수목원(당시 광릉시험림)에 조림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식목일 기념사에서 故朴正熙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황폐한 산지를 하루 빨리 복구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며 나무를 사랑하고 산림을 애호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광릉숲 육림호 주변에 영식 지만군과 함께 1.5ha에 전나무와 잣나무를 조림하였다. 그 후 이 조림지가 시발점이 되어 전국적으로 조림과 사방사업이 전개되어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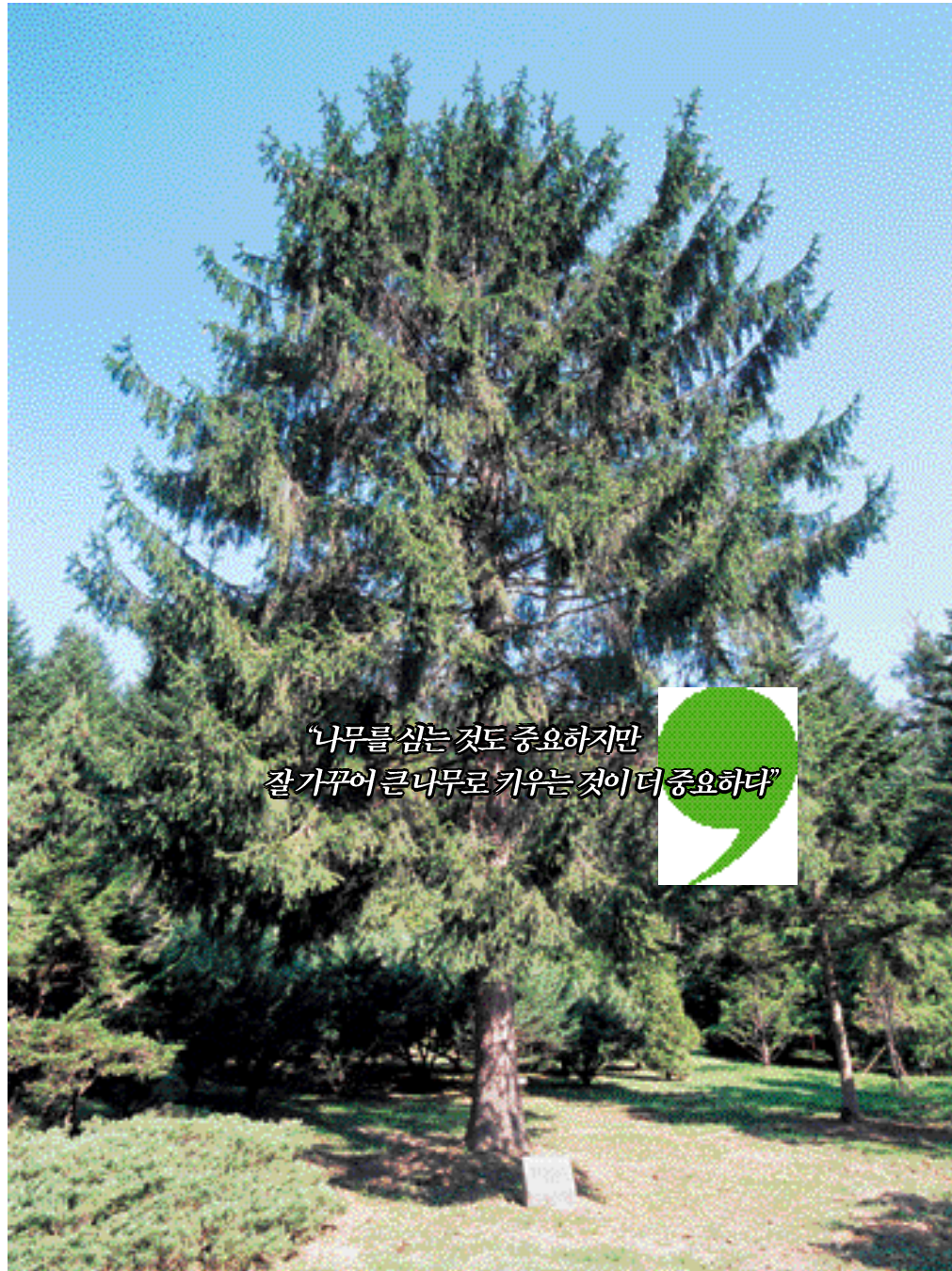
또한 故朴正熙대통령은 육림호 옆에 14년생 은행나무 한 그루를 국무위원들과 함께 기념식수하였다. 당시 기념식수한 은행나무는 현재 나무높이 14m, 가슴높이 직경 34cm의 거목으로 자라고 있으며, 늦은 가을에도 노란 단풍잎을 달고 숲에 으뜸으로 성장하고 있다.

조림 후 38년이 지난 지금 울창한 모습으로 변모했으며, 당시에 식재되었던 나무들은 용재수로 활용할 만큼 자랐다. 1988년 서울올림픽때에는 본 조림지에서 솟아낸 잣나무들을 올림픽공원으로 이식하였다. 현재 올림픽 주경기장과 몽촌토성 주변에 자라고 있는 잣나무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식해 간 나무들이다.



故朴正熙대통령 전나무 기념조림(사진제공 : KTV)

전나무, 잣나무 기념조림지



전두환대통령 독일가문비 기념식수목

“조림에서 육림”으로 전두환대통령 육림행사 및 기념식수

1980년 11월 1일 제4회 육림의 날을 맞이하여 전두환 대통령은 육림사업의 일환으로 반송에 산림용고형복합비료를 시비하는 숲가꾸기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 육림사업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전두환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어 큰 나무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였다.

또한 전두환대통령은 국립수목원 침엽수원에 독일가문비 30년생 한 그루를 기념식재하였다.

독일가문비는 상록침엽교목으로 국내에는 1924~1927년경 도입되어 주로 용재수, 풍치수 및 조경수로 심어지고 있다.

당시에 식재하였던 독일가문비는 현재 가슴둘레 직경 34cm, 나무높이 16m까지 자랐으며 지금도 겹푸르게 왕성한 생장을 하고 있다.



전두환대통령 반송 육림작업

“광릉수목원 개원 축하”와 전두환대통령 내외분 육림행사 및 기념식수

1987년 11월 7일 전두환대통령은 광릉수목원 개원 첫 해인 육림의 날을 맞이하여 장기경제수종인 국립수목원 전나무조림지에 대한 비료주기 육림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도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앞서 실천하여 우리나라 모든 산주들이 이를 본 받아 육림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였다.

또한 전두환대통령 내외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조성한 수목원인 광릉수목원(현 국립수목원) 개원을 축하하며 산림박물관 앞에 25년생 반송 한 그루를 함께 기념식수 하였다. 당시에 심은 반송은 현재 수관폭 6.0m, 나무 높이 5.0m로 성장했으며,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을 찾는 방문자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전두환대통령 내외분 전나무 육림작업



전두환대통령 반송 기념식수목



“우리나라도 이제는 녹화위주의 조림에서
우량한 목재생산과 다양한 용도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신품종 육성이 필요한 시기”

노태우대통령 분비나무 기념식수목

“신품종 육성”을 강조한 노태우 대통령 기념식수

1989년 4월 5일 제44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노태우대통령은 수목원 관상수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녹화위주의 조림에서 우량한 목재생산과 다양한 용도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신품종 육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자생침엽수인 분비나무 20년생을 기념식수하였다.

기념식수목으로 식재한 분비나무는 우리나라 고산지역에서 자라는 상록교목침엽수로 줄기가 곧게 자라고, 잎의 질감과 수형이 미려하며, 특히 나무껍질이 회녹색으로 곧게 뻗은 모습이 아름다워 관상수, 공원수 및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으로 쓰인다.

당시에 심은 분비나무는 현재 나무높이 13m, 가슴둘레 직경 22cm로 자라 있으며, 지금도 하늘로 치솟은 짙은 녹색의 왕성한 생육을 하고 있다.



“국토녹화기념탑 제막식”과 함께 한 노태우대통령 기념식수

1992년 4월 5일 제47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노태우대통령은 그동안 국토녹화를 위해 힘 쓴 국민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립수목원 관상수원 정면에 노태우대통령의 친필로 쓴 국토녹화기념탑을 제막하였다.

탑의 높이는 7.2m이며 석재는 푸른색을 띤 섬록암을 사용하여 녹화의 의미를 부여하였고 기단의 바닥돌은 9개 도에서 나는 지방 특산돌을 방사형으로 갈아 놓아 전 국민의 정성을 한 곳에 모아 그동안 온 국민이 국토녹화에 힘써 온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표현하였다.

노태우대통령은 국토녹화기념탑 제막과 함께 관상수원 무궁화원에 무궁화 40년생 한 그루를 기념식재하였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로 깊은 심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잘 자라는 나무다. 당시 노태우대통령이 식재한 무궁화(홍화량)는 현재 매우 잘 자라고 있으며 매년 수백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무궁화가 나라꽃 국화로서 이렇게 멋지게 가꿀 수도 있다는 것을 국립수목원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소개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노태우대통령 국토녹화기념탑 제막식



노태우대통령 무궁화 기념식수



노태우대통령 무궁화 기념식수목



“쫄모 있는 경제수를 많이 심어
가치있는 목재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삼대통령 반송 기념식수목

“문민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김영삼대통령 기념조림 및 식수

1994년 4월 5일 제4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문민정부 첫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은 국립수목원 전시림에 기념식수 참가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구상나무를 기념조림 하였으며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쫄모 있는 경제수를 많이 심어 가치 있는 목재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씀하였다. 기념조림한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 해발 500~2000m 고산지역에서 자생하는 상록침엽교목이다.

당시에 식재한 구상나무와 전나무는 나무 높이 3~6m, 가슴둘레 직경 6~12cm 정도로 자라 울창한 숲으로 변모 하였다.

또한 김영삼대통령은 국립수목원 관상수원에 27년생 반송 한 그루를 식재하였다. 기념식수한 반송 또한 나무높이 8m, 나뭇가지 직경 6m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잘 자라고 있으며, 생김새가 부드러워 국립수목원을 찾는 방문자들이 연일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촬영의 명소로 이용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 구상나무 기념조림

김영삼대통령 반송 기념식수

“숲 가꾸기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영삼대통령 기념조림

1997년 4월 5일 제52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김영삼대통령은 광릉숲 내에 전나무와 잣나무 5년생을 식재하였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서 김영삼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의 나무심기 솜씨를 보여 참여한 분들이 대통령을 따라 식재하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또한 김영삼대통령은 숲가꾸기 시범을 관람하고, 나무심기 행사를 주관한 산림청장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함께 참여한 인사들과 오찬장에서 막걸리를 들며, “지금까지 심은 나무를 잘 가꾸는 일은 목재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하였다.

이날 식재한 전나무는 광릉숲에서 채종하여 기른 묘목으로 산림유전자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며, 함께 식재한 잣나무 역시 광릉숲에서 채취한 씨앗에서 얻은 묘목을 식재한 것이다. 잣나무는 목재와 잣 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식재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수종으로 심재부가 담홍색으로 아름다워 홍송(紅松)이라고도 부르며 옛부터 관(棺)을 만드는 나무로 귀히 여겼다.

당시에 심은 잣나무와 전나무는 현재 나무높이 6~10m, 가슴둘레 직경은 6~14cm로 매우 빠른 속도로 연간 약 40~50cm씩 왕성한 생장을 하고 있다.



식재 전 상황설명



김영삼대통령 전나무 기념조림



김영삼대통령 전나무, 잣나무 기념조림지



“숲은 생명이 숨쉬는 삶의 터전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흙은 숲에서 얻어지고
 온 생명의 활력도 건강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숲에서 비롯된다.”

김대중대통령 금강소나무 기념식수목

“세계 산의 날 산림헌장”이 선포된 김대중대통령 내외분 기념조림 및 식수

2002년은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로서 산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산림헌장을 제정하였으며, 김대중대통령 내외분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산의 모양으로 다듬은 화강암에 산림헌장을 글로 새긴 비를 제막하였다. 또한 김대중대통령 내외분은 강원도 평창에서 가져온 17년생 금강소나무 한 그루를 기념식재하였고, 금강소나무와 상수리나무 묘목을 국립수목원에 조립하였다. 식재한 금강소나무는 소나무의 여러 품종 중에서 금강송으로 불리고 있으며, 강원도 금강산부터 경상북도 조령으로 통하는 종관산맥(縱貫山脈) 가운데 특히, 계곡부위의 토양수분 조건이 좋고 비옥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

당시에 기념식수한 금강소나무는 현재 나무높이 8m, 가슴둘레 직경 14cm로 왕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전형적인 금강소나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념조림된 금강소나무 상수리나무도 키 2.5~3.5m, 가슴높이 직경 4~6cm로 잘 자라고 있으며 벌써 작은 숲을 이루고 있다.



김대중대통령 내외분 금강소나무 기념식수

금강소나무, 상수리 기념조림지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

노무현대통령 주목 기념식수목

“야생화”를 좋아하신 노무현대통령 내외분 기념식수

2007년 5월 17일 노무현대통령은 국립수목원 관상수원 무궁화 전시원 내에 고산식물인 17년생 주목 한 그루를 기념식수 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수 후 관상수원과 관목원을 돌아보며 어릴 때 고향에서 보았던 야생화와 보리뚱나무(보리수) 열매 이야기, 고시공부 할 때 대나무숲 주변에서 보았던 병꽃나무 이야기 등 우리 주변에 있는 소박한 풀과 나물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이웃집 아저씨 같이 이야기 주머니를 풀어 놓았다.

산림생물표본관도 돌아보며 자원의 중요성과 필요성들에 대한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당시 식재한 주목은 1년이 지나면서 점차 수세가 회복되어 붉은 줄기의 주목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검푸른 잎과 원추형의 독특한 모양으로 발달하며 왕성한 생장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 내외분 주목 기념식수



산림생물표본관 관람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노각나무 기념식수목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기념조림 및 식수

2004년 4월 5일 제5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립수목원 전시림에 강원도산 음나무, 마가목, 거제수나무 및 개화나무 묘목 3,200본을 기념조림하였다. 또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한국특산 수목인 15년생 노각나무 한 그루를 숲의 명예전당 옆에 식재하였다.

당시 기념식수한 노각나무는 한국특산수종으로 흰꽃과 홍황색 얼룩무늬의 줄기가 어울려 아름다우며, 현재 나무높이 8m, 가슴높이 지름 14cm로 가을의 연노란색 고운 단풍이 주변 수목과 어우러져 숲의 명예전당을 지키는 지킴이나무로 잘 자라고 있다.

또한 이날 전시림에 함께 식재된 음나무, 거제수나무 등도 이제는 제법 본래의 수종들이 가지는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며 왕성하게 자라 숲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노각나무 기념식수

음나무 외 4종 기념조림지

大統領

광릉숲 대통령 나무
어제와 오늘



- ① 故朴正희대통령 전나무 기념조림(사진제공 : KTV)
- ② 전두환대통령 내외분 전나무 육림작업
- ③ 노태우대통령 무궁화 기념식수
- ④ 김영삼대통령 반송 기념식수
- ⑤ 김대중대통령 내외분 금강소나무 기념식수
- ⑥ 노무현대통령 내외분 주목 기념식수
- ⑦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노각나무 기념식수



木

광릉숲 대통령 나무 어제와 오늘



- ① 故박정희대통령 은행나무 기념식수목
- ② 전두환대통령 독일가문비 기념식수목
- ③ 노태우대통령 분비나무 기념식수목
- ④ 김영삼대통령 반송 기념식수목
- ⑤ 김대중대통령 금강소나무 기념식수목
- ⑥ 노무현대통령 주목 기념식수목
- ⑦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노각나무 기념식수목



林

광릉숲 대통령 나무
어제와 오늘



- ①故박정희대통령 전나무, 잣나무 기념조림지
- ②김영삼대통령 전나무, 잣나무 기념조림지
- ③김대중대통령 금강소나무, 상수리 기념조림지
- ④고건 대통령권한대행 음나무 외 4종 기념조림지





Korea National Arboretum

광릉숲 대통령 나무

어제와 오늘